

박경철의 '오디세이아'



당신들의 민주주의

페르시아 전쟁은 인류역사상 가장 중요한 전쟁 중의 하나다. 규모면에서 이보다 큰 전쟁이나 시대의 판도를 바꾼 전쟁이아 무수히 많았지만, 페르시아 전쟁의 여진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페르시아 전쟁의 배경은 복잡하지만, 척박한 토양 탓에 해적질로 살아가던 그리스 민족에 대한 소아시아인들의 적개심이 일차적 원인이었다. 특히 그리스인들이 에게해를 건너 트로이를 멸망시킨 것은 금도를 넘은 일이었다.

이후 소아시아의 지배자가 된 페르시아 황제에게 그리스를 정복하는 일은, 왜구의 소굴이었던 대마도를 정벌하는 것과 같은 숙원 사업이었다. 하지만 페르시아의 그리스 정벌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소규모 해적들을 소탕하기 위해 전면전을 일으키기에는 실익이 너무 작았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그리스 해적들이 탄 배가 난파하여 페르시아 연안에 닿았을 때, 어전에 끌려간 포로들이 황제를 분노케 했다. 황제 앞에 무릎을 꿇으라는 명령에

포로들이 '우리는 인간 앞에 무릎 꿇지 않는다'고 버틴 것이다.

이 순간 페르시아의 황제는 그리스 정벌을 결심한다. 고레스(키루스) 대왕 이래 관용정책으로 주변국을 대해 온 페르시아지만, 이렇게 무례하고 야만스러운 민족을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결국 페르시아는 정벌을 감행하지만, 해상을 통한 다리우스의 첫 번째 원정은 기상 악화로 실패하고 만다. 그 후 왕위를 이어 받은 다리우스의 아들 크세르크세스가 아버지의 숙원사업이 되어버린 2차 원정을 준비한다.

관대한 크세르크세스는 군대를 일으키기 전에 그리스인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준다. 그는 사신을 보내 '흠과 물을 보내라'고 요구했다. 스스로 항복하고 앞으로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아들여겠다는 상징물을 바치라는 요구였다.

하지만 그리스인들은 항복은커녕 페르시아의 젊은 왕을 조롱했다. 페르시아 사신의 목을 베고, '모론 라베(와서 가지고 가라)'라고 답한 것이다.

분노가 극에 달한 크세르크세스는 페르시아 전역에서 100만 군대를 징발했다. 불사부대를 앞세운 페르시아의 진군은 위력적이었다. 바다 위에 함선으로 다리를 놓고 산을 깎아 운하를 만들며 진군했다. 부대가 물을 마시면 주변의 우물이 마르고 그들이 지나가면 새로운 길이 생겼다.

세 달에 걸친 진군 끝에 그리스 초입에 당도하자 황제는 진군을 멈추고, 다시한 번 사신을 보내 지금까지도 흠과 물을 보내면 용서하겠노라고 통고했다. 마지막 기회를 준 것이다.

이쯤되자 그리스도 당황했다. '와서 가지고 가라'고 호기롭게 외치긴 했지만, 이 거친 땅을 정복하기 위해 대규모 정군을 진짜 동원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탓이다.

의견이 분분했다. 며칠 낮과 밤에 걸친 토론이 이어졌다. 말하고 싶은 사람은 모두 말했다. 그 다음 싸우자는 쪽은 흰 돌을, 항복하자는 쪽은 검은 돌을 바구니에 담기로 했다. 돌을 세어 흰 돌이 더 많이 나오자 검은 돌을 던진 사람들

이 전부 결과가 승복했다. 전원 하나가 되어 맞서 싸우기로 결의한 것이다. 그 다음 결과는 모두가 아는데로 그리스군의 극적 승리였다.

페르시아 전쟁이 의미를 가지는 것은 바로 이 지점이다. 전술 전략이라든 군사적 영역이지만 전쟁을 결정하는 과정이 중요했다. 그들은 '스스로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했던 것이다.

페르시아는 황제의 결정에 따라 100만이 움직였지만 그리스는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스스로 움직였다. 그 순간을 가리켜 '인류역사에서 민주주의가 시작된 순간'이라 부른다.

이렇듯 민주주의는 자신들의 운명을 '스스로 논의하고 합의하고 결정하고 승복하는 것'이 요체다.

그로부터 2500 년이 지났다. 산업이 발전했고 과학은 진보했다. 그렇다면 민주주의는 어떻게 되었는가. 해적질을 일삼던 고대 그리스인들이 우리에게 묻는다. '당신들의 민주주의는 과연 어디에 있는가?'라고.

(지식나눔네트워크 대표)

종교칼럼



김광호 장흥 보림사 주지

명상하기에 좋은 계절입니다

이 어서 빨리 고통에서 벗어나라고 사물을 두드리고 범종을 울립니다. 특히 범종 소리는 장엄하고 거룩하여 듣는 이로 하여금 큰 평안을 줍니다. 예불과 더불어 백팔참회의 절을 마치고 나면 일체의 소리와 행위를 다시 거두어들여 오로지 무념으로 돌아가는 좌선에 들어갑니다. 이와 같이 수행자는 세상의 새벽을 여는 사람입니다.

아침 공양을 마치고 운동과 더불어 걷기 명상을 합니다. 절 입구에 피어있는 코스모스는 색깔은 화려하지만 가벼운 몸짓으로 어느덧 발걸음을 조졸하고 천진하게 합니다. 대숲 길을 지나서 길모퉁이 바로 돌아가면 시냇물의 장엄한 소리에 어느덧 귀가 번쩍 트입니다. 이렇게 보고 듣는 일체 대상을 만나지만 따라가지 않고 순간 포착을 하여 본래 자리로 돌아가면 마음이 푸른 가을 하늘처럼 맑고 밝은 참마음이 나타납니다.

문득 당송팔대가(唐宋八大家)의 한 사람인 소동파의 깨달음이 생각납니다. 동

파거사는 절에서 하룻밤을 머무르며 부처님의 깨달음이 무엇인지 밤을 새워 궁구(窮究)하였지만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분한 마음을 잡지 못하고 말을 몰고 산에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냇물 흐르는 소리를 듣고 부처님의 장광설법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소동파의 오도송을 읊조리며 일주문을 지나서 다리를 건너니 어느덧 들뜬은 점점 금빛으로 번져갑니다. 깨달은 사람은 이제 세상의 번뇌를 지혜로 바꾸는 원리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일체 대상이나 번뇌가 나타나면 따라가지 않고 바로 돌아켜서 비추어 보고 가을 하늘처럼 한결 티끌이 없다는 사실을 순간순간 자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티끌인 번뇌에 괴롭지 않으니 마치 푸르던 단 자연이 점점 금빛 물결로 바뀌는 것과 같습니다. 금빛은 부처님을 상징하며 모든 번뇌가 금이 바뀌어 깨달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룻밤 만에 깨달은

소동파는 이제부터는 세상에 유유자적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가을은 명상하기에 더없이 좋은 계절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변한다는 사실에 무상하다는 생각을 내어 빠져버리면 감각을 수 없이 허무해집니다. 하지만 변화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바라보면 모든 고통에서 해방되는 깨달음이 됩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깨달음인 사성제(四聖諦)로써 모든 고통을 벗어나는 처방전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마치 길들여지지 않는 말처럼 순간 방심하면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그러하기에 수행자는 새벽에 깨어나 나자마자 자신을 살피는 것입니다.혹시 악몽에 시달리거나 깊은 잠에 빠져서 허우적거렸다면 마치 말이 남의 당근밭을 망쳐버리는 것과 같으니 바로 채찍을 쳐서 여실하게 알아차려야 합니다.

하늘은 높고 말이 살피는 계절에 모든 존재는 변한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결국마다 언뜻이 피어날 것입니다.

기고



김광호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똑똑한 소비자라면 이렇게!

채소와 과일을 담고 냉장이 필요한 햄, 우유, 어묵 등의 가공식품의 순서로 담는 것이 좋다. 그리고 상하기 쉬운 육류와 어류를 마지막으로 담는 것이 똑똑하게 장을 보는 요령이라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장을 본 후에는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최대한 빨리 귀가하여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이다. 집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면 이이스박스를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렇게 장을 보는 순서도 중요하며, 안전한 식품을 고르는 방법을 아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소비를 할 때 꼼꼼하게 따지는 똑똑한 소비자들을 지칭하여 '스마트슈머(smart+consumer)'라는 용어도 등장했는데 이들의 식품구매행태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제조일자과 유통기한을 확인하는 습관이다.

흔히 사먹는 우유를 예를 들어 구입부터 음용까지를 살펴보면 하자. 먼저 우유팩에 표기된 날짜가 기한이 많이 남은

것, 제조 일자가 최근인 것을 고른다. 다만 유통기한이 남았어도 우유팩이 두툼하게 부풀어 있는 경우는 이물질이나 세균이 증식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한다. 다음으로 우유는 0~10℃에서 냉장 유통되는 제품으므로 보관 상태를 살펴봐야 한다. 우유는 구입 후 상온에서 방치하지 않아야 하므로 바로 섭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짧은 시간이라도 냉장보관을 해야 한다. 배달 우유의 경우 더욱 보관에 유의해야 한다. 한 우유업체는 공장에서 대리점까지 이송 시 매 차량에 대해 냉장온도를 체크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대리점에서 배달주머니로 옮겨진 후 소비자에게 제품이 배달되면 상온에 장기간 방치되는 경우가 생긴다. 특히 여름철에는 이른 오전 배달된 우유를 냉장보관하고 오후에 개봉해도 부패해 있는 경우를 종종 찾아볼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가장 안전한 방법은 배달 직후에 곧바로 냉장보관하고 빠른 시

간 내에 섭취하는 것이다. 또한 휴가철이라 자리를 비우거나 제시간에 제품을 확인하지 못할 때에는 미리 배달원에게 알려야 한다. 냉장고에 보관을 하더라도 개봉한 상태라면 여러 음식들에서 나온 가스나 산패를 일으키는 미생물이 공기 중에서 우유와 접촉하여 번질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유통기한이 남았더라도 포장을 열었다면 빠른 시일 내에 먹는 것이 좋다. 우유에는 면역력을 높여주는 성분이 들어있어 더운 여름철이나 환절기에는 특히나 사람들이 우유를 많이 찾게 된다. 건강을 위해 우유를 선택한다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은 안전하게 섭취하는 것이다. 주변에서 쉽게 구매하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만큼 우유의 위생은 간과하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는 소비자 모두가 우유를 구매할 때는 꼼꼼히 따지고 보관을 할 때는 신중하게 유지하여 건강하게 섭취하는 똑똑한 소비자가 되길 기대해 본다.

왕따보다 무서운 'SNS 감옥' 이제 그만

청소년 사이 카카오톡 등 단체 대화방으로 강제 초대해 욕을 퍼부어 여러 친구들 앞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심부름을 시켜 말을 듣지 않는 친구에 대해 따돌림을 시키는 신종 수법이 생겼다. 이에 따라 청소년들 사이에서 급증하는 사이버 괴롭힘(인터넷을 통한 집단 괴롭힘)을 해결하기 위해 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대화방에 초대할 때 반드시 상대방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법안

이 추진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청소년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대화방에 참여해야 했지만, 법이 개정되면 잠재적 사이버 괴롭힘 상황을 피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게 돼 사이버 폭력이 줄어들 것이다. 실제로 카카오톡 등 SNS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많아지면서 사이버 괴롭힘을 당한 사례는 갈수록 늘고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원이 지난 5월 중·

고생 4000명을 조사한 결과, 3명 중 1명 꼴(27.7%)로 사이버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교육부가 지난 3월 실시한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도 사이버 괴롭힘 피해를 경험한 학생이 1만2490명에 달했다. 괴롭히는 수법도 다양하다. 피해학생 카톡 대화방으로 초대해 대량의 욕설 메시지를 보내거나(일명 '떼까'), 피해 학생이 대화방을 나가려고 하면 끊어 카카오톡 등 SNS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많아지면서 사이버 괴롭힘을 당한 사례는 갈수록 늘고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원이 지난 5월 중·

피해를 주고 있다. 사이버 괴롭힘을 당하면 언제 어디서나를 괴롭히는 메시지가 울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커져 자살까지 생각하는 청소년들까지 발생하고 있다. '말이 입힌 상처는 칼로 입힌 상처보다도 깊다'라는 말이 있다. 학교 밖이 더 이상 고통 받지 않도록 가정과 학교, 그리고 우리 경찰이 함께 사이버 폭력의 잘못과 그 심각성에 대해 교육하여 피해자 없는 학교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 것이다. ▲오인수·광주시 광산구 유산동

社說

'관광 광주' 열악한 속식 인프라 확충부터

대형 국책사업이 속속 완료되고 국제행사 가 잇따라 열리면서 광주시가 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새 전기를 맞고 있지만 오히려 찾아오는 관광객마저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고 한다. 숙박시설과 식당 등 인프라가 열악한 탓이다.

광주시와 지역 관광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를 찾은 내국인은 211만 명, 외국인은 15만8000명으로 추산된다. 하루에 6200여 명이 광주를 찾은 셈이다.

여기에 내년에도 호남고속철도 1단계(충북 옥성~광주)가 개통되고 아시아 문화전당도 개관하면 광주를 방문하는 관광객은 하루 평균 1만 명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7월에는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까지 열리면서 외국인 관광객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지역 여행업계는 되레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대규모 관광객이 찾을 경우 재우고 먹일 숙박업소와 식당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광주지역 숙

박업소는 모두 835개로 1만7500여 개의 객실을 보유하고 있지만 단체관광객 유치에 가능한 1등급 이상 호텔은 18개로 객실수가 1234실에 불과하다. 시설이 낡은 모텔급까지 합쳐도 2000실이 채 안 된다.

이로 인해 지금도 한 곳에서 재우지 못하고 여러 곳에 분산시키거나 전남·전북 등지에서 원정 숙박을 하는 경우가 많다. 식당도 많은 인원을 적절할 가격에 한개반에 수용할 곳이 마땅치 않다. 단 2~3일 만에 수십억 원의 경제 유발 효과를 낼 수 있는 대규모 학술회회 유치는 엄두도 내지 못한다.

관광산업을 활성화하려면 숙박시설부터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을 이 유다. 특급호텔은 물론 국내 대도시 가운데 유일하게 광주에만 없는 콘도와 유스호스텔 등 가족형 호텔을 늘려야 한다. 문화도시의 특성을 살려 낙후 숙박 시설을 '아트 호텔' 등으로 리모델링하는 것도 대안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아차노조 부분파업 장기화 안 된다

기아자동차 노조의 부분파업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같은 회사인 현대자동차 노사가 지난달 29일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지만 기아차 노조는 석 달새 7차례나 파업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현재 기아차 노사는 지난달 25일 21차 보고섭을 진행한 뒤 아직까지 22차 보고섭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통상임금 정상화와 기본급 15만 9614원 인상, 완전월급제 전환 및 상여금 800%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사측은 기본급 8만2000원, 성과급 250%+400만 원, 격려금 100%와 장려금 300만 원 지급 등을 제시해 양측이 공전만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노조는 지난 8월 22일과 28일, 지난달 24·26·30일 하루 4시간씩 부분파업을 벌인데 이어, 1일과 2일에는 각각 6시간으로 늘려 파업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로 인해 기아차 광주공장의 경우 1만 1000여 대의 생산 차질과 1900여 원의

매출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산된다.

기아차 광주공장은 지역 제조업 매출의 30% 이상을 차지하는데다 수출도 광주 전체의 40%에 달하는 등 지역 경제의 핵심 축이다. 따라서 노조의 부분파업의 장기화는 회사의 손실도 문제이지만 지역경제에 막대한 타격이 아닐 수 없다. 계속되는 부분파업으로 인해 부품을 공급하는 협력업체의 피해도 누적되고 있다.

더욱이 이번 파업은 광주공장의 생산 물량 정제로 이어질 수 있는 멕시코 공장 설립과도 맞물려 부담이 크다. 광주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노조는 기아차가 오늘의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하기까지 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애정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된다. 상식선에서 사측과 임금협상을 마무리 짓고, 파업을 철회하는 게 모두가 상생하는 길이다.

無 等 鼓

미술관 문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의외로 많다. 작품을 보고 이해하는데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서 인듯하다. 전시회에 가끔 가는 내 경우는 조금 학구분한 입장이다. 마음을 움직이는 작품 1~2점을 만나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해서다.

2년에 한번씩 열리는 광주비엔날레는 내겐 흥미로운 전시다. 현대미술은 난해하고 생소하지만, 그만큼 또 내 마음에 해설이 가능해 재미있다.

며칠 전 '터전을 불태우라'를 주제로 열리고 있는 광주비엔날레에 다녀왔다. 우

도슨트

이러한 직접 도슨트에 도전해 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올 비엔날레 도슨트 40명 중 30명이 올 첫 경험자다. 1995년부터 도슨트 프로그램을 진행 중인 부산시립미술관은 '도슨트 인큐베이터' 프로그램까지 운영 중이다. 비엔날레재단, 광주시립미술관이 지속적으로 도슨트 양성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광주비엔날레에서는 하루 10차례 무료 도슨트 설명을 들을 수 있다. 도슨트 설명 전 미리 한 번 둘러보거나, 설명 후 다시 한번 감상한다면 금상첨화다. /김미은 문화부장 mekim@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창·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鎬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경 영 지 원 국 2200-515 (F A X 222-8005) (F A X 222-0195)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매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 치 부 2200-642	여론대체부 2200-696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대표 FAX 222-4918)	체 육 부 2200-697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사 회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대표 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